

## <기억하고 기대하라>

시편 103:1-5 / 새찬송가 94 (통일 102)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1. 우리 영혼은 왜 위대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흠으로 지으셨으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창1:26-28),(창2:7).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혼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롬8:7). 이에 우리는 영혼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영혼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즉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영혼으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시103:1).

### 2.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시103:2). 기억이란 사라진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시 살려서 일으키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는 그대로 다시 지금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처음 하신 일은 나의 죄를 사하심, 병을 고쳐주심, 내 생명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고 인자와 긍휼로 영생을 주신 일, 범사에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 일, 겉 사람은 늙어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복을 주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 3-5절은 현재형 즉 지금 일어나는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시103:3-5).

또 우리 영혼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기쁨은 피조물의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죄 사함과 신유와 전화위복의 문제 해결과 영생을 주시는 일들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일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특히 죄를 사해주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후유증 없는 신유의 치료와 전화위복의 문제해결과 영생을 주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일이니 이러한 일들을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 3.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피조물인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변하고 사라지기에 불안과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창조주이시며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히13:8),(약1:17).

우리의 근심의 근원은 ‘허무’에 있습니다. 지금 젊음과 건강과 생명과 행복과 불안이 있어도 미래에는 변하고 없어질 것이기에 근심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변하고 죽을 우리 몸이 종말에는 영의 몸이 되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빌3:21).

사랑은 버려두지 않고 관여하며 함께 하는 것인데 한없이 크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기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요 14:18). 물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관여하실지 설명할 수도 없고 예측이나 예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적용 & 실천 >

우리는 상처와 실수와 실패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의 변화나 사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신 일을 기억합시다. 또 환경과 사람을 초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시다.